

“면접 잘 봐서 제2의 삶에 도전하고 싶어요”

●2024년 광주여성 JOB페스타

광주시청 시민홀에 경력단절여성 채용 부스 등 50개 ‘백백’ 구직자상담·면접 등 적극...업체들도 안내·홍보·채용 열심

“다양한 기업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면접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이번 기회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시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광주 5개 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한 ‘내일(My Job)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2024년 광주여성 JOB페스타’가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취업 연계와 사업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50개의 채용 부스가 설치됐다. 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톨렛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개회 선언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의 축사와 협약기관 기념촬영 등이 이뤄졌으며 400여명이 넘는 이들이 행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이들은 채용 부스에서 면접을 봤고, 사전 신청 없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현장 접수 및 이력서 작성, 증명사진 촬영 등을 안내받았다.

한 50대 여성은 채용 부스에서 이력서를 제출한 뒤 본인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면접이 시작돼 여러 질문이

오갔다.

면접관은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차량이 필요한데 혹시 차가 있느냐?”, “이전 직장과의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 등의 질문을 던졌고 해당 여성은 “차량이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고 적성과도 맞아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은 여러 기업 부스를 돌아다니며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의 열기로 뜨거웠고, 다양한 부대행사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이직을 위해 광주여성 JOB페스타에 방문했다는 강민지(30·여)씨는 “현재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늘 면접을 본 곳도 기존에 하던 일과 유사한데 조건이 좋아 꼭 합격하고 싶다”며 “재미 삼아 취업타로도 한 번 봐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웃었다.

또 다른 구직자인 이모(50대·여)씨는 “프로그램 강사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왔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면접 분위기도 편안해 좋은 것 같다. 면접을 잘 봐서 제2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지역 내 일자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 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2024 광주여성 JOB페스타가 25일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려 여성 구직인들이 참여 기업 부스에서 면접을 보는 등 일자리를 찾고 있다. /김영근 기자

市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

광주시교육청은 25일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해 조차사 등 8개 직종 24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채용 인원은 ▲조리사 24명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24명 ▲특수학교(급) 돌봄교실강사 3명 ▲돌봄전담사 15명(전일제 7명, 시간제 8명) ▲방과후학교 전담 17명 등 88명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되는 채용 인원은 ▲조리원 127명 ▲미화원 26명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7명 등 160명이다.

응시원서는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https://edurecruit.go.kr)’에서 다음 달 7-10일 총 4일간 접수할 수 있다. /김대이 기자

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사과”

송선태 위원장 광주 방문...민변 “사법부 판결 반영해 내용 수정” 촉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활동 집약체인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광주 지역사회의 지적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5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대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조사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7개의 직권 과제 중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6개의 보고서에 대한 질책·우려가 쏟아졌다”며 “그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

다.

이날 설명회에는 5·18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는데,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를 직접 분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사법부의 판결보다 후퇴한 조사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광주고법이 11쪽에 걸쳐 다른 권용은 일병 사망 경위가 조사위의 개별 보고서엔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시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처리한 것은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권 일병에 대한 사망 경위를 다룬 개별보고서의 내용이 끝내 고쳐지지 않는다면, 공개금지 가져분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연식 조사위 조사과장은 “군·경 피해 관련 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다수 진술과 판결문을 종합해 종합보고서에는 반드시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를 마무리 하며 송 위원장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 뒤 “애초부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 갈바라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47 해질 19:14
🌙 달돋이 21:44 달질 06:44

| | | |
|-----|------|-------|
| 광주 | 맑음 | 13/24 |
| 목포 | 흐림 | 11/21 |
| 여수 | 구름많음 | 14/19 |
| 나주 | 구름많음 | 10/23 |
| 완도 | 흐림 | 11/21 |
| 구례 | 구름많음 | 11/25 |
| 강진 | 흐림 | 10/21 |
| 해남 | 흐림 | 10/21 |
| 장성 | 맑음 | 10/24 |
| 보성 | 구름많음 | 10/19 |
| 순천 | 구름많음 | 12/21 |
| 영광 | 맑음 | 9/23 |
| 진도 | 흐림 | 10/20 |
| 흑산도 | 구름많음 | 12/19 |
| 고흥 | 구름많음 | 10/21 |

●생활정보지수

🍷 **너들이 60** 🧥 **빨래 50** 🚗 **세차 50** 🏃 **운동 70**

여행 떠나요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준비운동은 충분히

●바다 날씨

| 위치 | 오전/파고(m) | 오후/파고(m) |
|------------|----------|----------|
| 서해 앞바다 | 0.5-0.5 | 0.5-0.5 |
| 남해 앞바다(북) | 0.5-1.0 | 0.5-1.0 |
| 남해 앞바다(남) | 0.5-1.0 | 0.5-1.0 |
| 남해 앞바다(동) | 0.5-0.5 | 0.5-0.5 |
| 남해 앞바다(서) | 0.5-1.0 | 0.5-1.0 |
| 남해 앞바다(남서) | 0.5-1.0 | 0.5-1.0 |

●물때

| 지역 | 만조 | 간조 |
|----|-------|-------|
| 목포 | 03:38 | 08:47 |
| 여수 | 10:17 | 04:17 |
| 녹동 | 10:50 | 05:21 |
| | 23:26 | 17:01 |

●전국 날씨

| 날짜 | 광주 | 서울 | 강릉 | 대구 | 제주 |
|-----------|-----------|-----------|-----------|-----------|-----------|
| 4월 27일(토) | ☀ (13/28) | ☀ (13/28) | ☀ (15/25) | ☀ (14/30) | ☀ (15/22) |
| 28일(일) | ☁ (15/28) | ☀ (15/29) | ☀ (14/21) | ☀ (14/30) | ☁ (16/24) |
| 29일(월) | ☁ (17/21) | ☁ (17/23) | ☁ (14/17) | ☁ (14/21) | ☁ (18/22)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전남대병원 교수도 ‘주 1회 휴진’

실문참여 82.3% 찬성...일정·방식 추후 논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화하면서 전남대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5일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주 1회 휴진’에 82.3%가 찬성했다.

설문에는 의대 교수 222명이 참여했고, 191명이 ‘주 1회 휴진’에 찬성했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날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1회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대병원 일반병실 가동률은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감소했고, 수술도 평시 대비 30%만 실시하고 있지만 중환자실은 80-90%가 차 거의 만실이다.

한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날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수희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